

사회

‘19세 잣대’에 묶인 장애인 성폭력 처벌

경찰, 고소된 통학버스 기사 비장애인과 같이 ‘혐의 없음’ 결론

법·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19세 지적장애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본보 21일자 6면 보도) 이 운전기사를 ‘혐의 없음’으로 잠정결론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아닌 이상 구체적인 강요나 위계 등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광주 S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 A(19)양이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B(62)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돼 관련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A양측은 B씨가 4~5차례에 걸쳐 A양을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B

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3차례에 걸쳐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2~3차례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일치하지만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만 19세로 성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받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소인이 지적장애

인이라는 것을 감안, 충분한 조사와 화를 검토까지 했으나 현재까지는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끝내고 심리를 거친 뒤 조만간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은 A양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타인이 자신을 만지는 행위를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성폭행을 당해도 거부 반응을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도 지적장애인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양이 초등학교 저학년 지능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자칫 경찰 수사가 이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연(29) 광주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은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의든 타의든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기 마련이다”며 “범죄 발생 시 지적장애인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해 수사하고 피해자의 보호·관리를 강화해 성폭행을 당해도 거부 반응을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고종석은 사이코패스”

광주지검, 구속 기소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인 고종석(23)이 사이코패스 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감진)는 지난 21일 광주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종석을 강간등 살인, 영리약취·유인등,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며 “국립법무병원 정

신과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고종석은 인격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소아성기 호중 진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종석이 정신감정에서 사회성부족과 대인관계 기피증 등 사이코패스로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보이기는 했으나 치료가 필요한 다른 정신적인 장애는 없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

아성기호중증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종석은 검찰조사에서 그동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뒤바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고종석은 DNA 분석 및 대조결과 현재까지는 여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종석은 지난날 30일 새벽 1시30분~2시에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6)를 이복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불라벤 때 직원 뇌사후 사망

“무재해 깨질라” 사고 은폐 의혹

광주도시철도공사 용산차량기지에서 지난달 28일 태풍 ‘볼라벤’에 의한 강풍으로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에 화재가 발생, 직원 1명이 질식사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측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광주시해대대책본부 등에 보고조차 안 해 고의로 사고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볼라벤이 동반한 강풍이 엄습한 당시 광주시 동구 광주지하철 용산차량기지 내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저장시설에서 불이

나 직원 강모(41)씨가 질식,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중태에 빠졌다.

이 사고로 강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1일 결국 숨졌다. 도시철도공사는 그러나 보고체계상 상급기관이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용하고 있는 광주시에도 이같은 사실을 제 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현재까지도 볼라벤에 의한 인명피해 명단에도 빠져 있다. 당시 도시철도공사는 119에만 신고, 강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또 강씨는 업무를 보던 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IA 18001) 인증, 5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최초로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를 마쳤고 노동청으로부터도 사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유족들이 가족장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나와라 똑딱!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주최로 23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경양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1회 추석맞이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율동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허위사업서 작성 보조금 21억 골격

여수해경,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여수해경은 23일 자격도 없으면서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여수시로부터 20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아 채권 혐의(사기, 납입가장)로 수산물 가공업체 N사 대표 한모(65)씨 등이 회사 경영진 4명을 불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여수시가 시

행한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사업에 자격도 없으면서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 여수시로부터 21억원의 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어업과 무관한 10명의 명의를 빌려 자본금이 전혀 없는 이른바 ‘장동회사’를 설립한 뒤 여민 14명이 14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사업에 참

여하는 것처럼 허위사업계획서와 자부담에지증명서 등을 시에 제출,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보조금을 받아 준공한 멀치 가공저장시설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6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부가세 1억90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이 돈들을 개인 어선 운영자금과 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해경은 시 공무원들이 사업자 선정 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것으로 판단, 이들과 공무원간 유착관계 여부도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나원침 (8654) 김종두



지방신문 기자가 구청 비서실장 뺨때려

광주남부경찰청은 23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구청 비서실장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지검 일간신문 H일보 광산주재 기자 오모(45)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남구청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A(41)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날 지인의 집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문제로 비서실장과 통화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구청에 직접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

KIA 음주사고 손영민 임의탈퇴

생다팔

○-지난21일 새벽 3시5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투수 손영민(25)이 음주 상태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몰다 주차된 모닝 차량을 추돌해 모닝 뒷좌석에 타고있던 조모(18)양이 경상. ○-경찰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손영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측정.

○-한편 KIA는 한국야구위원회에 손영민을 1년간 프로에서 뺄 수 없으며 다른 팀에 가지 못하도록 구단이 묶어두는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를 요청.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희소식!**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기부담 전액용자

한번의 선택으로 30년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드리며 검수는 한전전기안전공사에서..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주택
- 누진세 때문에 걱정되는 주택
-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된 주택은 물량부족, 미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
-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시공가능
- 2013년부터는 태양광전문기업에서 자체사업추진 예정이며보조대신 용자사업으로 대체예정임
-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음달로 저축해서 (여름이나 겨울에)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사용량별 전력요금표	2012년 9월 6일 전기요금 개정안
사용량(kwh)	요금(원)
100	7,010
200	21,230
300	42,370
400	75,270
500	124,310
600	207,470
700	284,480
800	361,490
1000	515,510

상문의 (주)셈 에너지 광주지점

광주 전남 동북부지역 062-528-3070 019-655-5678

전남 남서부지역 061-727-2371 019-624-2371